

쓸 만한 백업 선수가 없다고? 쓸 줄 모르는 감독 탓이다

바스켓볼 브레이크

고작 3~4분 투입 감독의 불신이 성장 막아
주전-백업 격차 심화...선수층 약화로 귀결

“2016~2017 KCC 프로농구” 정규리그가 막바지로 치닫하고 있다. 5라운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각 팀 선수들의 체력은 많이 떨어진 상태다. 시즌 초반보다 전체적으로 득점이 하락한 데도 체력저하가 적잖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

다. 순위경쟁이 치열한 때 주축 선수들의 체력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백업 선수들의 활용이 몹시 중요하다.

●백업 부재, '감독의 불신' 문제다!

몇몇 구단 감독들은 “우리 팀은 주전과 백업의 격차가 크다. 이 때문에 주전들의 체력관리가 어렵다”고 하소연한다. 주전과 백업 선수들의 기량차가 커서 선수활용폭을 넓게 할 수 없다는 것은 팀을 이끄는 감독 입장에서 답답할 노릇이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을 만든 데는 감독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 선수기용은 전적으로 감독

의 권한이자 책임이기 때문이다. 주전 선수가 쉬는 동안 안정적으로 활약해줄 백업 선수가 하루 아침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고작 5~10분 가량이라도 매 경기 꾸준히 기회가 주어진다면, 자신의 움직임과 역할에 익숙해질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A구단의 한 선수는 “어쩌다 한 번 경기에 나가면 3~4분은 코र्ट만 왔다 갔다 하다가 ‘몸이 풀린다’ 싶으면 교체된다. 아무것도 보여준 것이 없으니 다음 기회가 언제 올지 모른다”고 말했다. 결국 백업 선수가 실수를 저지르더라도 감독이 꾸준히 기용할 수 있는, 신뢰가 있는 나야 관건이다. 대부분의 팀에서 비시즌 동안 백

업 선수들의 운동량은 엄청나게 많다. 심지어 5월부터 연습경기를 치르는 팀들도 있다. 선수의 장단점을 파악하고도 남을 시간이다. 이런데도 감독이 제대로 된 백업 멤버 1~2명도 만들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운동을 많이 시켰어도 선수를 믿지는 못한다’는 의미밖에 되지 않는다.

●아파도 말 못하는 백업의 설움

백업 선수들은 비시즌 동안 오전·오후·아간 등 하루 3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한다. 운동량이 많고, 비시즌 훈련기간도 긴 만큼 몸에 무리가 오는 것은 당연지사다. 그러나 이들은 “아

파도”는 말도 못한다. 부상으로 인해 단 2~3분의 출전 기회조차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수층이 두꺼운 B구단의 한 선수는 올 시즌 중반 꾸준히 출전 기회를 얻었다. 주전으로 출장하는 경기도 있었다. 비시즌부터 심한 발목통증을 앓고 있었지만, 참고 뛰어야만 했다. 이 선수는 “어떻게 온 기회인데... 일단 뛰어야 한다. 이번엔 부상으로 쉬면 다시 기회가 안 올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이 선수는 결국 페이스가 떨어졌고, 최근에는 출장 기회가 확 줄었다. 좋은 백업 선수를 두는 것도 감독의 능력에 달려 있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코트 위의 헤드록? 미국프로농구(NBA) 올랜도 매직의 서지 이버가(위)가 14일(한국시간)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아레나에서 벌어진 2016~2017시즌 정규리그 마이애미 히트와의 원정경기 2쿼터 도중 공격을 펼치는 고란 드라기치를 두 팔로 감싸는 파울로 저지하고 있다. 올랜도가 116-107로 이겼다. 마이애미 히트(라자) | AP뉴시스

사익스 원맨쇼...KGC, 1위 삼성 반게임차 추격

동부전 25점·7R·4AS 공수 중형무진
벤스 24G연속 더블더블...기록은 계속



KGC가 테크니션가드 키퍼 사익스의 맹활약으로 난적 동부를 꺾었다.

KGC는 14일 안양체육관에서 열린 '2016~2017 KCC 프로농구' 동부와의 홈경기에서 25점·7리바운드·4어시스트·2스틸로 중형무진 활약한 사익스를 앞세워 87-74로 이겼다. 이날 승리로 27승13패가 된 2위 KGC는 1위 삼성(27승12패)에 0.5 경기차로 다가섰다. 반면 동부(21승19패)는 공동 4위에서 5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다.

KGC와 동부는 이날 경기 전까지 올 시즌 4차례 맞대결에서 2승씩을 나눠가졌다. 각자의 홈에서 2승씩을 챙겼다. 동부 김영만 감독은 “KGC가 홈에서 분위기를 잘 타더라. 사익스 수비가

문제다. 개인기가 좋아서 우리 가드들이 막기 어렵다. 사익스가 분위기를 한 번 타면 무섭다”라고 경계심을 나타냈다.

김 감독의 우려대로 동부는 사익스를 무찌 못했다. KGC는 3쿼터 중반부터 분위기를 타면서 확실한 리드를 가져갔는데 사익스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사익스는 수비에서 동부 가드 허웅(11점)을 강하게 압박했다. 동부 가드진은 좀처럼 활로를 뚫지 못하고 로드 벤스(12점·16리바운드), 웬델 맥키네스(21점·14리바운드), 윤호영(11점)은 3점 라인 부근까지 올라와 볼을 받아주지 못했다. 센타-포워드들의 볼 받는 위치가 골대에서 멀어지니 다시 포스트까지 들어가는 데 어려워졌다. 그 덕분에 KGC는 49-48로 앞선 3쿼터 종료 5분10초전부터 약 3분30초 동안 동부에게 한 점도 허용하지 않았다.

동부의 득점이 묶이는 사이 KGC는 사익스의 돌파가 호조를 이루면서 62-48까지 달아났다. 사익스가 3쿼터 종료 버저에 맞춰 하프라인 부근에서 던진 숏가드 림에 빨려 들어가면서 KGC의 상



KGC의 키퍼 사익스(왼쪽)가 14일 안양체육관에서 열린 동부와의 경기 도중 드리블 돌파를 시도하다 패스할 곳을 찾고 있다. 안양 | 뉴시스

승세는 더 강렬해졌다. KGC는 67-54의 리드 속에 4쿼터를 맞았다. KGC 김승기 감독은 4쿼터에는 포스트 강화를 위해 사이먼을 투입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날은 달랐다. 4쿼터에도 사익스를 기용해 동부 가드진을 혼드는 데에 집중했다. 사익스가 20점 이상을 기록한 것은 지난해 12월3일 삼성전에서 29점을 올린 이후 처음이다.

동부의 벤스는 24경기 연속 더블-더블 신기록 행진을 이어갔지만 팀의 패배를 막지 못했다.

안양 |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KB스타즈, 고생 끝에 낙이 올까

스톡스·홍아란 이탈 등 잇단 악재로 부진
마침내 꼴찌 탈출...PO 진출 대반전 기대

KB스타즈는 마지막에 웃을 수 있을까.

KB스타즈는 13일 구리체육관에서 벌어진 '삼성생명 2016~2017 여자프로농구' 정규리그 6라운드 KDB생명과의 원정경기에서 74-67로 이겼다. KB스타즈(11승18패)는 최하위에서 벗어나며 3위 KDB생명(12승18패)과의 격차를 0.5경기로 줄였다.

이날 승리는 KB스타즈에 매우 중요했다. KDB생명과의 시즌 상대전적에서 3승3패로 균형을 맞췄다. 정규리그를 통틀어 마칠 경우 상대전적에서 앞서는 팀이 상위순위로 결정된다. KB스타즈는 3위 경쟁을 벌이는 4개 팀 중 상

대전적에서 KEB하나은행에 2승3패로 열세다. 신한은행에는 4승2패로 앞서있다. KEB하나은행과의 상대전적을 뒤집을 기회도 남아있다. 16일 맞대결에서 이기면 7라운드에서 역전을 노릴 수 있다. 최근까지 최하위에 머물렀던 KB스타즈의 플레이오프(PO) 진출 가능성 또한 높아졌다.

KB스타즈는 올 시즌 개막에 앞서 '1강' 우리은행을 견제할 수 있는 팀으로 꼽혔다. 수준급 슈터 강아정을 보유한 데다, 홍아란과 김가는 등 가용인원도 풍부했기 때문이다. 신인드래프트에서 거물급 센터 박지수를 뽑아 전력은 한층 강화됐다. WKBL 경협이 없는 안덕수 감독이 지휘봉을 잡았다는 변수가 있었지만, PO 진출은 무난할 것이라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개막 이전부터 여러 악재가 터졌다.

외국인선수 드래프트에서 전체 4순위로 뽑은 키아 스톡스가 다른 리그로 떠났다. 박지수는 19세 이하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부상을 입어 데뷔가 늦어졌다. 올 1월에는 주전 가드 홍아란이 팀을 떠나는 일까지 벌어졌다. 팀 분위기는 어수선했고, 경기력도 기대만큼 나오지 않아 하위권을 맴돌았다.

다행히 최근 4경기에서 3승1패를 거두며 부활했다. 공격력이 살아난 덕분이다. 내·외곽의 균형을 되찾아 최근 4경기 평균 76.75점을 넣었다. 원정전을 치른 우리은행전(97-95 승리)에서 4쿼터까지의 득점만 계산해도 평균 71.5점이다. 시즌 전체 평균 득점(62.7점)보다 9점 가량 높다. 문제는 실책이다. KB스타즈는 평균 15.30실책으로 6개 팀 중 최하위다. 9일 삼성생명예에 패(73-76)할 때는 무려 22개의 실책을 범했다. KB스타즈가 잔여 6경기에서 실책을 최소화하며 PO 진출이라는 대반전을 완성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최용석 기자

우리은행만 만나면 작아지는 삼성생명

농구토토 W매치 32회차 중간 집계
참가자 49% “우리은행 승리” 전망

농구토토 W매치 32회차 투표율 중간집계

(14일 오전 9시)			
구분	삼성생명 vs 우리은행	투표율	삼성생명 vs 우리은행
1순위	30-35	11.51%	70-70
2순위	35-30	7.88%	60-70
3순위	30-30	7.86%	70-80
합계	출팅 우세 28.36%	출팅 승리 20.57%	5점 이내 백빙 24.41%
	원정팀 우세 47.25%	원정팀 승리 49.03%	

3경기에서 2승1패를 거뒀다.

삼성생명은 유독 우리은행만 만나면 힘을 쓰지 못한다. 올 시즌 우리은행을 상대로 5경기에서 1승도 챙기지 못했을 뿐 아니라, 맞대결 평균 득점도 56점으로 시즌 전체 평균 득점보다 10점 이상 낮았다. 다만 최근 3연승을 달리고 있고, 연승기간 중 평균 득점도 78점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양 팀의 최근 상황을 고려하면 높은 득점대의 난타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농구토토 W매치 32회차는 15일 오후 6시50분 발매 마감된다.



골프토토 스페셜 4회차 (LPGA ISPS 한다 호주 여자오픈) 투표율 중간집계 (14일 오전 8시 현재)

구간/선수	3오버 이상	1~2오버	0(이븐)	1~2언더	3~4언더	5언더 이하 언더파 예상
아리아 주타누간	13.00%	18.20%	13.50%	22.72%	22.74%	9.84%
고보경	12.06%	17.53%	10.10%	28.60%	21.19%	10.52%
브룩 헨더슨	12.69%	18.19%	14.97%	28.57%	20.36%	5.23%
장하나	12.48%	19.28%	15.82%	26.79%	18.33%	7.29%
노무라 하루	13.74%	24.57%	9.90%	25.99%	16.86%	8.93%
찰리 힐	19.97%	26.26%	12.49%	23.53%	12.61%	5.15%
모 마틴	21.23%	22.71%	14.89%	20.85%	12.59%	7.73%

“고보경 언더파 활약” 60% 골프토토 스페셜 4회차 중간 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트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16일 호주 그랑계에서 열리는 'LPGA ISPS 한다 호주여자오픈' 1라운드를 대상으로 한 골프토토 스페셜 4회차 게임의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전체 참가자의 60.31%는 고보경의 언더파 활약을 점쳤다. 아리아 주타누간(55.30%)이 2순위를 차지한 가운데 브룩 헨더슨(54.16%), 장하나(52.41%), 노무라 하루(51.78%)도 과반의 언더파예상을 기록했다. 반면 찰리 힐(41.29%), 모 마틴(41.17%)의 언더파 지지율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정선수별 1라운드 예상 스코어에선 주타누

간(22.74%)이 3~4언더파로 가장 좋은 성적을 낼 것으로 예상됐다. 고보경(28.60%), 브룩 헨더슨(28.57%), 장하나(26.79%), 노무라 하루(25.99%)는 모두 1~2언더파 구간이 1순위로 집계됐다. 언더파 예상에서 저조했던 찰리 힐(26.26%)과 모 마틴(22.71%)은 1라운드 예상 스코어에서 1~2오버파 구간이 가장 높았다. 이번 골프토토 스페셜 4회차는 15일 오후 9시 50분 발매 마감된다. 골프토토의 경우 특히 선수 개인 또는 현지 사정 등으로 인해 대상선수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게임에 참여하기 전 반드시 지정선수를 확인해야 한다.

“KGC, 도공 잡는다” 63%

배구토토 스페셜 25회차 중간 집계

체육진흥투표권 스포츠토트의 수탁사업자인 케이토토(www.ktoto.co.kr)가 15일 벌어지는 2016~2017시즌 국내프로배구 V리그 남녀부 경기를 대상으로 한 배구토토 스페셜 25회차 게임의 투표율을 중간 집계한 결과, 전체 참가자의 63.27%는 여자부 도로공사-KGC(1경기)전에서 원정팀 KGC의 승리를 내다봤다. 홈팀 도로공사 승리 예상은 36.73%에 그쳤다. 세트 스코어 예상에선 2-3 KGC 승리(28.55%), 1세트 점수차 예상에선 5점(29.46%)이 각각 1순위를 차지했다.

남자부 OK저축은행-삼성화재(2경기)전에선 원정팀 삼성화재 승리 예상(59.04%)이 홈팀 OK저축은행 승리 예상(40.96%)을 앞질렀다. 세트 스코어 예상에선 0-3 삼성화재 승리(22.15%), 1세트 점수차 예상에선 5점(42.39%)이 각각 가장 높았다.

이번 배구토토 스페셜 25회차는 1경기 시작 10분 전인 15일 오후 4시50분 발매 마감되며, 공식 온라인 발매 사이트 베타맨(www.betman.co.kr)에서 일정을 확인할 수 있다.